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선녀*

¹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겸임교수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fant Temperament, Nurturing Behavior, effect on Infant Develop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Nurturing Behavior-

Seon-Nyeo Choi*

¹Dep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Children, Dae-J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영아기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2008년도에 출생한 영아 1,802명과 어머니이다. 연구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Amos 16.0을 통하여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각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긍정적 심리특성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머니 양육행동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쳐 영아발달의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고,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영아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th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self-estee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infant temperament, parenting look at how the variables affect the infant development. Study is an infant born in 2008, 1802 mothers name. Child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Children's Panel 3rd year data were used for the study. Analysis of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18.0 correlation evalu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the path and the effect of each variable on infant development through Amos 16.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mothers had a positive impact due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arenting Infant Development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mother and mediating role of parenting behavior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path to infant development. Second,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mothers showe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path to the Infant Development wer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parenting mothers on infant development. Third, the direct effects on the mother parenting infant develop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Key Words : Depression, Infant Development, Infant Temperament, Nurtur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Self-efficacy,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Seon-Nyeo Choi(Dae-Jeon Univ.)

Tel: +82-10-8530-6828 email: sunny5100@hanmail.net

Received June 4, 2015

Revised August 4, 2015

Accepted August 6, 2015

Published August 31, 2015

1. 서론

영아기는 전 생애에서 차지하는 기간은 짧으나 의사소통, 개인 사회성, 문제해결, 신체발달 능력 등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출현하여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욕구의 표현도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그러한 이유로 영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이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뿐만 아니라 발달로 인한 급속한 변화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게 되지만, 점차 문제해결 능력도 발달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영아 자신의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행동에 의해 경감될 수 있으며 어머니와의 상호호혜적인 경험은 독특한 발달적 양상 및 개인차를 보이게 되어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은 영아발달을 포함하여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영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드물게 이루어졌다[1]. 그러나 최근 영아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국내의 몇몇 영아 관련 연구들[2-3]에서 영아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의 연관성을 밝혔으며, 이러한 변인들을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4].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다면적 연구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Crockenberg[5]는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내적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서적 지원과 칭찬의 경험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개선시켰다고 하였다. 박현정과 이정님[6]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도 온정적이었으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신의 성취가치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성취동기는 인과효과가 큼을 밝혔다.

Lerner와 Galambos[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이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영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우희정[8]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아의 자기효능감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의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강압적인 행동을 보였다. 공인숙[9]도 자녀에게 강한 권위적 양육행동을 보인 어머니에 비해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 어머니가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어머니의 심리특성 중 자아존중감도 자기효능감 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변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이며, 환경의 지각에 있어 선택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하여 행동하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감정의 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영아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평가할 때 긍정적이었다[10].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양육스트레스 또한 덜 지각한다[11].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Cohen과 Willis[12]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영아발달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한편 Panaccione와 Wahler[13]는 어머니의 우울증상으로 자녀의 우울증상도 높아진다고 하였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대답하지 않거나, 부주의하며, 무관심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Hammen[14]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상의 사례를 자녀가 가지고 있었으며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하였고 우울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영향을 미쳐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정신 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고, 또래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유능감의 저하, 학업수행 능력 저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 부적응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15], 영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혼란이 실질적인 연속선상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 증상이 높을 경우 어머니는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지각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관여도 줄어 자녀에게 비판적 행동을 나타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대적이거나 짜증을 많이 내며, 엄격하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16]. 특히 어머니의 산전, 산후 우울은 양육행동을 통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아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17].

그리고 고성혜[18]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를 통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가족환경 변인을 연구한 결과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안지영[19]도 어머니의 자녀발달에 대한 지각과 성취압력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자녀발달과 성취압력과 모성 인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통하여[20],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지식 및 민감성 연구[21]에서,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 연구[22]에서 어머니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께 다루었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영아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과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 중 양육스트레스는 영아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밝혀졌다[23]. 어머니는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정신적·신체적·사회적 변화, 가족구조와 구성원간의 관계 및 역할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24].

양육을 수행함에 있어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영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거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거부,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 영아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합리적·애정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 영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6].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성장하는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유아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27], 유아의 적응성, 리더쉽, 인지도와 같은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28].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

적 특성뿐만 아니라 영아기질과 영아발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영아발달과 어머니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인데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인지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양육행동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아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일차적 관계만 고려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22].

한편, 인간에게 있어 인격 및 습관의 형성은 유아기부터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증명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온정적이면 자녀는 사회적이고 자기주장을 표현하는데 익숙하다. 즉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은 어머니-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게 하고 자녀들의 발달 또한 긍정적이었다[29].

그러나 어머니가 거부·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행할 경우 자녀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을 보이며, 문제해결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30]. 이렇듯 어머니가 긍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의 성격은 거부, 무반응, 불안정, 부정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이상의 연구들과 같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들의 발달에 긍정적이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발달에 역효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영아 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기질은 유아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발달에 있어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32]. 또한 영아기질은 선천적 변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자녀효과 모델[33]과 영아 환경으로부터 차별화된 반응을 보이고 이로 인한 차별 환경이 다시 영아발달에 기여한다는 유기체 환경 촉발모델[34] 관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영아기질을 빨리 파악하고 기질에 적합한 상호작용과 양육행동을 취할 때 영아발달에도 긍정적이므로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35].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36]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이 자

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37]는 어머니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차단하거나 완충해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차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기능도 수행함을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매개하여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중요하다 사료되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의 영아발달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영아 개인 변인으로 영아기질은 어머니 심리적 변인 및 양육행동과 영아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본 연구의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그와 함께 어머니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선정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영아기질이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3차년도(2010)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아동패널자료는 수집부터 활용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며 3차년도 데이터는 2012년에 배포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의 3차년도 자료는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영아 1,802명과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인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919명으로 51%를 차지하며 여아는 883명으로 49%이다. 영아의 성별은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남아가 약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아의 평균 월령은 25.75개월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대부분 30대이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n=1,802)

variables		division	N	%
Infant	Sex	Male	919	51.0
		Female	883	49.0
	Month	23Months	67	3.7
		24~25Months	717	39.8
		26~27Months	848	47.1
		28~29Months	154	8.5
		30~31Months	16	0.9
	Age	Under 25s	41	2.3
		26s-30s	427	23.7
		31s-35s	925	51.3
Over 36s		395	22.0	
Missing data		14	0.7	
Mother		Edu cation	High School	501
	College		419	23.3
	University		669	37.1
	Master		89	4.9
	Missing data		124	6.9
	Of employ ment	Employment	600	33.3
		Unemployed	1201	66.7
		Missing data	1	0.0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SKC) 3차년도(2010)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아발달, 어머니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영아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2.2.1 영아발달

영아발달 검사도구는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Age & Stage Questionnaire)이며 이 도구를 허계영, Janen Squires, 이소영, 이준석[19]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K-ASQ(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를 표준화하였다. K-ASQ는 총 5가지 발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ASQ의 5개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요’는 0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영아발달 하위변인 의사소통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6$, 개인사회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5$, 문제해결의 신뢰도 Cronbach's α

= .60, 신체활동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61$, 영아발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 이다.

2.2.2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도구는 Pearlin Self-Efficacy Scale[20]을 번안 수정한 아동패널 검사도구이다. Pearlin Self-Efficacy Scale은 높은 내적합치도와 작은 수의 문항 내용은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그리고 문항의 내용이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변수 변환하여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번안한 아동패널 자료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진술된 5개의 문항과, 부정적으로 진술된 5개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척도의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변수 변환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다.

2.2.4 우울

우울의 측정도구는 Kessler 등[22]이 개발한 간편형 우울척도 K6를 수정한 아동패널 검사도구이다. 내용은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등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안느낌'은 1점으로 '항상 느낌'은 5점으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다.

2.2.5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 Greenberg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의 Maternal Guild

Scale(MGS)을 기초로 하여 김기현, 강희경[23]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아동패널 검사도구이다. 총 10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86$ 이다.

2.2.6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검사도구는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 과 Pecheux[24]가 개발한 양육스타일(PSQ: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이다. 양육행동은 온정성을 알 수 있는 5개 문항과, 반응성을 알 수 있는 4개 문항이다. 문항은 사회적 양육유형 9개 문항이 선택된 것이다. 양육행동의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되고, 온정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78$, 반응성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어머니 양육행동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다.

2.2.7 영아기질

영아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를 사용하였다. EAS는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의 3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분되어, 각각 10개, 5개, 5개, 총 2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100이다. 그러나 EAS 중 일부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 코딩하였다. 영아기질 하위변인 사회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51$, 정서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44$, 활동성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58$, 영아기질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이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모든 척도의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모델의 경로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각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s (n=1,8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28**	1											
3	.39**	.38**	1										
4	.38**	.36**	.49**	1									
5	.07**	.02	.04	.05*	1								
6	.09**	.03	.05*	.08**	.48**	1							
7	-.10**	-.04	-.04	-.03	-.55**	-.55**	1						
8	-.13**	-.05*	-.05*	-.08**	-.46**	-.53**	.50**	1					
9	.02	.03	.04	.06*	.16**	.07**	-.17**	-.15**	1				
10	.03	.04	.01	.06*	.14**	.21**	-.15**	-.16**	.16**	1			
11	.01	.03	.01	.05*	.10**	.15**	-.07**	-.06**	.30**	.63**	1		
12	.17**	.06**	.09**	.10**	.30**	.43**	-.31**	-.46**	.01	.18**	.12**	1	
13	.12**	.06**	.06*	.06*	.29**	.41**	-.28**	-.41**	.00	.21**	.14**	.78**	1

** $p < .01$

1. communication, 2. personal-social, 3. problem solving, 4. physical activity, 5. self-efficacy, 6. self-esteem, 7. Depression, 8. parenting stress, 9. sociality, 10. emotionality, 11. activity, 12. warm-hearted, 13. responsive

3. 연구결과

3.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분석 결과 Table 2를 살펴보면 영아발달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r = .07, p < .01$), 자아존중감($r = .09, p < .01$), 온정성($r = .17, p < .01$), 반응성($r = .12, p < .01$), 우울($r = -.10, p < .01$)과 양육스트레스($r = -.13, p < .01$)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영아발달의 개인 사회성은 온정성($r = .06, p < .01$)과 반응성($r = .06, p < .01$), 양육스트레스($r = -.05, p < .05$)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영아발달의 문제해결을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r = .05, p < .05$)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온정성($r = .09, p < .01$)과 반응성($r = .06, p < .05$)이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영아발달의 신체활동은 자기효능감($r = .05, p < .05$), 자아존중감($r = .08, p < .01$), 양육스트레스($r = -.08, p < .01$)는 유의한 상관이었다. 그리고 영아기질의 사회성($r = .06, p < .05$)과 정서성($r = .06, p < .05$)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최대 .78로 .85이상일 경우 독립변수들 간의 지나친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3.2 연구모델의 검증결과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델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모델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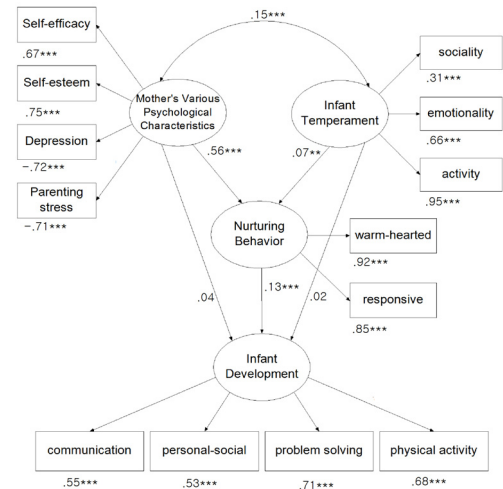
측정한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Model Fit Summary of Research Model

χ^2	df	NFI	IFI	TLI	CFI	RMSEA
389.1	59	.95	.95	.94	.95	.05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은 389.1(59, $p < .001$), NFI(.95), IFI(.95), TLI(.94), CFI(.95)는 .90 이상으로 우수하였고, RMSEA(.05)는 .08 이하로 양호하였다.

연구모델의 경로분석 결과는 Fig. 1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 $p < .01$, *** $p < .001$,

Factor is being standardized coefficients

Fig. 1. The Infant Development of the impact of final model

Table 4. The path coefficient the final model

		β	Estimate	S.E.	C.R.	P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04	.097	.089	1.092	.275		
Infant Temperament	→	.02	.108	.179	.601	.548		
Nurturing Behavior	→	.13	.203	.059	3.465	***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56	.822	.045	18.424	***		
Infant Temperament	→	.07	.291	.097	3.010	**		
	→		self-efficacy	.67	1.549	.061	25.496	***
	→		self-esteem	.75	1.000			***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Depression	-.72	-1.634	.060	-27.347	***
	→		parenting stress	-.71	-1.468	.054	-26.992	***
	→		sociality	.31	1.000			***
Infant Temperament	→		emotionality	.66	3.459	.283	12.218	***
	→		activity	.95	5.103	.527	9.678	***
Nurturing Behavior	→		warm-hearted	.92	1.121	.038	29.602	***
	→		responsive	.85	1.000			***
	→		communication	.55	1.478	.084	17.675	***
Infant Development	→		personal-social	.53	1.135	.066	17.203	***
	→		problem solving	.71	1.353	.068	19.751	***
	→		physical activity	.68	1.000			***

** $p < .01$, *** $p < .001$, Factor is being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5. Infant Development: direct, indirect effects among the variables total effect (i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E	t-value (C.R.)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4.4	7.5	11.9	.089	1.092
Infant Temperament	→	1.8	1.0	2.8	.179	.601
Nurturing Behavior	→	13.4		13.4	.069	3.465***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56.4		56.4	.045	18.424***
Infant Temperament	→	7.3		7.3	.097	3.010**

** $p < .01$, *** $p < .001$, Factor is being standardized coefficients

Fig. 1의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모형을 살펴보았다.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4, t = 1.065, p > .05$). 영아기질 또한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beta = .02, t = .586, p > .05$)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beta = .14, t = 3.501, p < .001$). 그리고 양육행동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 심리적 특성은 유의하였고($\beta = .56, t = 18.425, p < .001$) 영아기질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07, t = 3.008, p < .01$). 그리고 표준화계수에서는 $p < .05$ 이상, $CR. = 1.965$ 이상이어야 유의하지만 구조방정식 특성상 적합도 검증결과가 우수하므로 다른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38].

어머니 심리적 특성, 양육행동,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된 최종모델을 기초로 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를 구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를 참고하여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4%($t = 1.092, p > .05$)였다. 그리고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서는 7.5%였으며 이를 더한 총효과는 11.9%였다. 다음은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서의 직접효과도 1.8%($t = .601, p > .05$) 이었고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0%로 총효과의 결과는 2.8%였다. 반면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13.4%($t = 3.465, p < .001$)로 유의하였다. 그리하여 변인간의 간접경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매개변인인 양육행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여 소벨검증을 이용하였다.

소벨검증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즉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은 간접효과를 간접효과와 표준오차(S_{ab})의 비율, 즉 일종의 검증통계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값이 1.96보다 크면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

소벨검증 결과는 아래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Mother parenting indirect effects Sobel test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Nurturing Behavior→ Infant Development	Infant Temperament→ Nurturing Behavior→ Infant Development
A	0.56	0.07
B	0.13	0.13
SE A	0.039	0.029
SE B	0.001	0.001
Sobel test	14.272	2.413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이 영아발달로 가는 경로에 있어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소벨검증값은 14.272($p < .001$)와 2.413($p < .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Fig. 2, Fig. 3과 같다. 각각의 A, B, C 직접효과와 비교하여 A×B의 간접효과를 보면 양육행동은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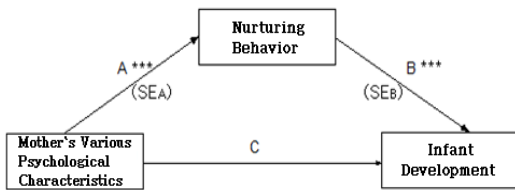


Fig. 2. Psychological variables of the mother is in effect on Infant Development Parenting complete mediating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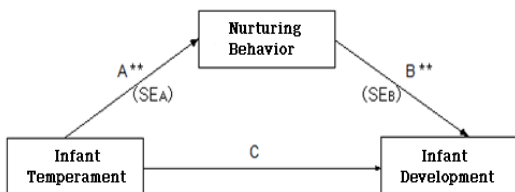


Fig. 3. The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in Infant Development Parenting complete mediating effect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양육행동은 Table 6에서와 같이 소벨검증 결과도 유의하였고 양육행동은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영아발달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재구조화한 통합모델을 제안하고, 연구모델이 영아발달을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인지를 검증하였다.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영아발달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어머니 심리적 변인 및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친 직접 효과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살펴보면 어머니 긍정적 심리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정적 효과를 상쇄하였지만, 긍정적 심리의 영향이 영아발달에 미친 효과가 더 크므로 인하여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긍정적 심리를 갖고 있는 어머니는 대부분 자신의 감정만큼 타인의 감정도 중요하고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영아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미숙하므로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발달의 전반에 걸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영아발달에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부정적 심리인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머니 긍정적 심리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상쇄되어 영아발달에도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소벨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이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어머니 심리특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은 영아발달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크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직접 효과가 크음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할 때 본 연구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한 어머니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적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지지와 더불어 영아발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면, 첫째, 영아기질(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은 영아발달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영아발달의 각 하위변인들 중 신체활동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영아기질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활동적이며 타인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인지적 자극을 받게 되고 사회·정서성 및 인지발달 능력도 높아지며, 영아기질의 정서성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영아의 언어발달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영아 개인에게 내재된 기질은 개인차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아 개인의 기질적 변인에 따라 사교성이 풍부하거나 수줍음이 많고 활동적인 영아들이어도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변화는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머니가 영아 개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여 영아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발달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기질은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이 높아짐을 나타냈고 어머니와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 영아발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녀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주길 바란다면 어머니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도 함께 뒷받침된다면 영아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셋째,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소멸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였고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즉 어머니 양육행동이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여 영아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가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을 때 어머니

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며,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영아의 기질을 조기에 파악할수록,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행동을 취할 때 영아발달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정적상관관계였으며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영아가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의 관계에서도 민주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영아발달은 어머니 심리적 특성과 선천적 요인인 영아기질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한 영향이 더 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는 어머니 심리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어머니 양육의 실제도 달라져 영아발달의 질적 변화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그대로 수용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어머니는 심리상태에 따라 영아의 행동이 기분 좋게 인식되기도 하고 반면 혼을 내는 등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자녀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므로 어머니는 심리상태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육아원칙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가 양육행동에 반영되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되었다. 그런 이유로 부모는 체계적이고 양질화된 교육수혜를 자녀에게 반영하고자 심리적·경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환경적인 부분들에 집중하다보면 자녀에게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최초이자 평생 스승’임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친 열성은 어머니의 지나친 양육행동의 또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도 없다. 그러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행동은 영아발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궁극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야 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집착과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비교보다 긍정적 삶의 자세와 성숙한 인간관계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발달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 양육을 보다 잘 하기 위해 어머니는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긍정적인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반영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어머니 자신이 성장하는 동안 좋은 양육행동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그런 이유로 부정적 양육행동이 세대 간 전수될 수 있음에 따라 긍정적 양육행동 및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녀와 어머니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자녀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아의 성장· 발달과 함께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도 변화하므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밖에 산후 우울증, 주부 우울증, 양육스트레스와 같이 어머니의 체력이 저하되어 지친 경우, 감정 자체에 기복이 생긴 경우에도 양육행동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관되지 못한 양육행동이 우울, 양육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영아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머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체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서로 수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고민과 갈등을 푸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아기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의 부담이 큰 때이므로 어머니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로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영아발달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J. Moon,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Parent-Child Relationship",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2), pp.15-31, 2008
- [2] K. H. Lee, S. J. Seo, "Effects of Infant and Matern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tern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Infant Development ",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3), pp.87-102, 2009.
- [3] H. J. Lim, H. J. Choi, S. N. Choi, "The Effect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pp.83-107, 2012.
- [4] Putnam, S. P., Sanson, A. V., & Rothbart, M. K.,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pp. 255-277).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2.
- [5] Crockenberg, S., Predictors and correlation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 *Child Development*, 58, pp.964-975, 1987. DOI: <http://dx.doi.org/10.2307/1130537>
- [6] H. J. Park, K. N. Lee., "The Effects of Mother's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on Children's Self-Efficac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Studies, 14(4), pp.547-559, 2005.
- [7] Lerner, J. V., & Galambos, M. L. Maternal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reat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pp.1157-1164, 1985.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21.6.1157>
- [8] H. J. Woo.,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Self-efficacy", Jhonnam National University, 1993.
- [9] I. S. Kong., "Children's Self - Percieved Competence and Their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0(1), pp.64-78, 1989.
- [10] Chung, H.,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pp.1015-1022, 2004. DOI: <http://dx.doi.org/10.2466/pr0.95.3.1015-1022>
- [11] E. J. Baik, M. J. Kang, S. A. Han., "Difficulties in Parenting Influenced by the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hild's Tempera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1), pp.65-78, 2012.
- [12] Cohen, S., & Willis, T.,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pp.310-357, 1985.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98.2.310>
- [13] Panaccione, V. F., & Wahler, R. G., "Child behavior, maternal depression, and social coercion as factors in the

- quality of child ca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pp.263-278, 1986.
DOI: <http://dx.doi.org/10.1007/BF00915445>
- [14] Hammen, C. L.,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pp.189-206, 1992.
DOI: <http://dx.doi.org/10.1017/S0954579400005630>
- [15] H. J.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Mother's Depression Tendency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Mokpo National University, 2002.
- [16] Leung, D. W., Slep, A. M. S., "Predicting inept discipline :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pp.524-534,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74.3.524>
- [17] Misri, S. M., Kendrick, K., Oberlander, T. F., Norris, S., Tomfohr, L., Zhang, H., & Grunau, R. E., "Antenatal depression and anxiety after postpartum parenting stress :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4), pp.222-228, 2010.
- [18] S. H. Go., "Mother research on perceived parenting stres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8, pp.21-37, 1994.
- [19] J. Y. "Ahn.,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0.
- [20] S. J. Seo., "Maternal self-efficacy,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from Early Head St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U.S.A., 2003.
- [21] Y. H. Yee, M. Y., Oh.,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9(3), pp.47-62, 2006.
- [22] Y. J. Kim, Y. S. Song.,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bout Infants and Parental Stre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12(4), pp475-493, 2007.
- [23] Abidin, R. 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pp.407-412, 1992.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24] H. Y. Chun & K. W. Ok., "The effect of maternity and child rearing system variables on postpartum depression of infant's mothers. Annual Conference of Panal Study on Korean Children Book (pp. 59-82) Seoul. Korea, 2010.
- [25] J. Y.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yle of mothers with infants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5), pp.35-4, 2009.
- [26] Y. S. Baek.,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27] Crinic, K. A., Gaze, C., & Hoffman, C.,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pp.117-132, 2005.
DOI: <http://dx.doi.org/10.1002/icd.384>
- [28] H. M. Kim, & H. Do.,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pp.279-298, 2004.
- [29] J. L. Lee.,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Internalizing Problems in Single Parent Families: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Esteem",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3), pp.115-125, 2008.
- [30] Pettii, G. S., Dodge, K. A., & Brown, M. M.,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pp.107-120, 1991.
DOI: <http://dx.doi.org/10.2307/1130393>
- [31] Khaleque, A., & Rohner, R. P.,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pp. 54 - 64, 2002.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2.00054.x>
- [32] Rothbart, M. K., Derryberry, D., & Posner, M. I., "A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temperament", In J. E. Bates & T. D. Wachs (Eds.), *Temperament: Individual differences at the interface of biology and behavio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DOI: <http://dx.doi.org/10.1037/10149-003>
- [33] Patterson, G. R., & Fisher, P. A., "Recent developments in our understanding of parenting: Bidirectional effects, causal models, and the search for parsimony", - *Handbook of parenting*, - judzrun-children.googlecode.com, 2002.
- [34] Scarr, S., & McCartney, K. "How people make their

- own environments: A theory of genotype greater than 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 pp.424-435, 1983.
DOI: <http://dx.doi.org/10.1111/j.1467-8624.1983.tb03884.x>
- [35] Y. E. Lee, Y. H. Kang, H. S. Park, E. J. Whang, M. Y. Moon, "Relationship of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and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Maternal Role", Academy of Child Health N, 9(2), pp.206-220, 2003.
- [36] E. J. Lim, A. S. Park., "A Study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hysically Disabled Women's Nurturing Behavior-Focusing on the interven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6)4, pp.67-90, 2012.
- [37] S. G. Le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on the Relation between Deviant Peer's Influences and Delinquency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7, pp.121-151, 2008.
- [38] Kline, R. B.,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5.

최 선 녀(Seon-Nyeo Choi)

[정회원]



- 2011년 2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석사)
- 2015년 2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06년 9월 ~ 2010년 2월 : 성지 유치원 원장
- 2014년 9월 ~ 현재 : 최선녀 아동 발달 연구소 원장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겸임 교수

<관심분야>

영유아 발달, 유아문제행동 등 유아교육관련 분야